



● 시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로, 도약의 비전을 선포한 인천대학교의 이름은 INU이다. 국립대학교의 이름을 달고 '지역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INU의 비상이 시작된다.



크리액티브(CreActive): 진화하는 INU의 창조적 실행력

Talk 1_팀제 및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성 업그레이드
Talk 2_미래가 기대되는 현재, 우리 대학의 교수 경쟁력을 말하다
질 레슬리 타오 행정학과 교수
Talk 3_꿈의 신소재, 그래픽 연구로 주목받다
안호선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CONTENTS

- 03 INU 스토리 천 년의 거인 위에 올라선 젊은 대학
- 04 INU는 지금 예술적 향취가 가득 스민 송도 캠퍼스

More Special INU

CreActive! 진화하는 INU의 창조적 실행력

- 08 Talk 1 팀제 및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성 업그레이드
- 10 Talk 2 미래가 기대되는 현재, 우리 대학의 교수 경쟁력을 말하다
질 레슬리 타오 행정학과 교수
- 12 Talk 3 꿈의 신소재, 그래픽 연구로 주목받다
안호선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More than all, INU

- 14 INU 휴먼파워
제11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동석 무역학부 교수
제주경찰청장 김성근 동문
- 18 글로벌 탤런트 스페인 말라가대학 교환학생 구기욱 학생
- 20 INU 온에어 동북아국제통상학부

INU Now

- 24 올 댓 인천 개항장의 패스트푸드, 자장미엔 그리고 짜장면
- 26 인천 꼬원 함께 나누는 즐거움, 인천 공동체
- 28 드림은 INU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합격률 4년 연속 1위
- 30 INU 입시가이드 2014학년도 인천대 수시모집 공략은 이렇게!
- 32 INU 뉴스&이슈
- 34 I love INU
- 36 발전기금 출연자
- 37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천 년의 거인 위에
올라선 젊은 대학

중세에 태어나 오늘날까지 계승, 발전되는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이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은 볼로냐 대학으로서 1088년에 건립되었다. 12세기에 살라망카·옥스퍼드·소르본 대학 등이 세워지고 그 후 독일어권의 프라하·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이 설립되었다.

글 | 이지은 교수(인문대학장)

대학은 교회와 수도원을 제치고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고

도시와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으뜸가는 방법이었다. 대학 없는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인류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 대학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진리 탐구와 자유의 신장에 대한 본질적 소명이었다. 그리고 이 포기할 수 없는 대학의 소명 위에서 시대의 요청을 수용하고 선취한 봉사정신이었다.

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대학에 비추어 볼 때 34년에 불과한 우리 대학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탈도 많았던 사립대학의 오명을 떨치고 일어나 대학 민주화의 신평탄이 되었으며, 시립대학으로의 변신, 전문대학과의 통합,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 등 다른 대학들이 백 년에 걸쳐 경험할 일들을 해낸 저력 있는 대학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 우리 대학은 비록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유구한 대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으며, 천 년의 거인 위에 올라선 젊은 대학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학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대학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대학의 본질적 소명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자. 물론 대학은 상아탑만이 아니며, 대학도 하나의 기관이고 제도로써 엄연한 현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간다. 그러나 대학은 진리 탐구, 자유의 신장, 인류에 봉사하는 자율적 이성이 살아 숨 쉬는 곳이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애면글면하지 말자. 대학의 본질적 요소로 밑그림을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대학의 근간을 세우며, 혁신과 다양성으로 지붕을 잇자. 오늘의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서해안의 작은 대학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한다.



예술적 향취가 가득 스민 송도 캠퍼스

차가울 作, 〈순환의 여행 1 방주와 강목 사이〉, 설치미술



정경화 作, 〈필들의 산책〉, 한지에 수묵



우리 대학 캠퍼스가 회화, 수묵화, 조각, 설치미술, 서예, 판화 등 100여 점의 미술작품들로 꾸며져 색다른 운치감을 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송도 캠퍼스를 미술작품과 함께하는 예술문화 공간으로 조성, 내적으로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외적으로는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대학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조형예술학부의 자발적 참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작품들은 주로 조형예술학부 교수와 재학생, 동문들이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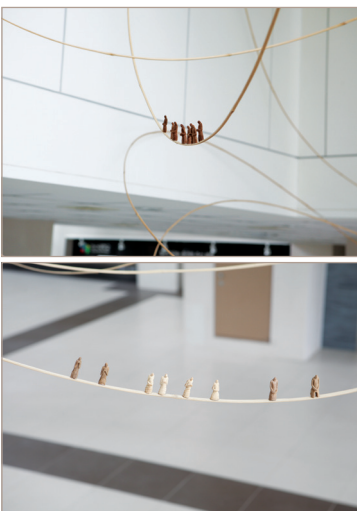
글 | 편집실 사진 | ALIVE STUDIO

우리 대학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학부는 지난 6월 11일 송도 캠퍼스 대학본부 1층에서 INU 송도비전 실현을 위한 미술작품 교내설치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최성을 총장,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지역 예술계 관계자, 교수, 학생, 동문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본교 교수, 강사, 대학원생 및 동문 등으로부터 제공된 97점(임대 작품 61점, 기증 작품 36점)의 작품 설치식이 있었다.

최성을 총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미술 작품을 기증하고 전 구성원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 정성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대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준비한 우중택 조형예술학부장도 “송도 캠퍼스의 현대적 건물에 어울리는 현대적 작품들로 엄선했다”며, “작품들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쉼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원로 미술작가인 강하진 서양화가는 “작품 수준이 아주 높으며 대학 문화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번 ‘교내 미술작품 설치 프로젝트’의 1차 전시물들은 1, 2년간 같은 공간(대학 본관, 도서관, 컨벤션센터, 예술체육대 등에 전시된 후 다른 작품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대학은 인천 지역 미술작가의 작품까지 포함된 다양한 미술품을 캠퍼스 내 다른 곳에도 전시하기로 했다. INU



크리액티브(CreActive), 진화하는 INU의 창조적 실행력

우리 대학은 1979년 개교 이후 34년 동안 '사립'에서 '시립(1994)'으로, 또 송도 캠퍼스 이전(2009) 및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2010), 그리고 지난 1월 국립대법인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거쳤다.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INU 송도비전 선포식을 통해 사회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창조적 교육혁신, 격려와 자극의 연구전통 확립을 통한 연구력 향상, 지역사회와 밀착하며 지역발전 선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역량강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성과주의 정착 등 5대 과제를 선포했다. 최성을 총장은 "성과주의 정착 등 5대 핵심과제를 궤도에 올려 대학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면, 2020년까지 5대 국립 거점대학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Creative+Active=CreActive

팀제 및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성 업그레이드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며 맞이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조직 개편이다. 지난 3월 기존의 4처 27개 과를 6처 45개 팀으로 개편하면서 행정업무 전반에 경쟁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팀제와 성과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에 성과주의를 정착시켜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5대 거점 국립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주현태 기획예산처장(이하 주현태), 김종호 기획평가팀 평가담당(이하 김종호)을 통해 우리 대학의 변화에 대해 들어본다.

글 | 편집실 사진 | ALIVE STUDIO



왼쪽부터 주현태 기획예산처장과 김종호 기획평가팀 평가담당

Q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후 대학 행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주현태___ 대학 비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화에 맞춰 조직을 팀제로 개편했고, 또 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과체제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부서평가, 직원평가 등 성과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킴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대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구조를 본부 중심에서 단과대학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학교 전체 차원에서 기획을 하거나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일은 본부가 담당하고 실무와 관련된 일들을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본부가 단과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철저히 교수와 학생을 위한 고객중심의 행정 시스템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하향식의 'Top-Down' 방식의 운영체계에서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Bottom-Up' 방식, 즉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상향식 운영으로 바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Q 팀제 전환 후 4개월 지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주현태___ 아직 가시화된 성취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팀제 도입 초기라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직원들이 빠르게 팀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한해 동안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연말경 기준에 수작업으로 하던 평가 부분을 전산화하는 안을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종호___ 7월 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실무위원 및 대학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올해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말이 되면 실제적으로 부서별 평가실적을 제출받고 평가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 다시 한 번 진단을 하고 내년 초에 목표에 맞춰 조직 자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예를 들어 심사위원 구성에 외부위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동기부여를 위한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___ 팀제의 성공 포인트는 직원들의 마인드입니다.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으로 교내 직원의 신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래 우리 대학 직

원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과 학사직원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법인화를 기점으로 하여 민간인 신분이 된 것입니다. 즉, 국립대학법인 출범과 함께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법인 직원'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인력개발팀을 신설, 기본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직원설명회 및 6월 10일 실무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바뀌면서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으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해답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교육은 물론 직원들의 의견을 세밀히 청취해나갈 것입니다.

Q 향후 기대하는 바는?

주현태___ 팀 단위의 부서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성과를 낸 부서는 팀 단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산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팀제 도입 및 직원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 및 부서의 업무 전문성이 향상되고, 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으로써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부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통해 우리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최적의 생태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INU





미래가 기대되는 현재, 우리 대학의 교수 경쟁력을 말하다

질 레슬리 타오(Tao, Jill Leslie) 행정학과 교수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반대로 내부의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국립대학교로 전환 후 해외 우수 대학의 교수를 영입한 우리 대학은 강력한 눈을 가졌다. 그 중 행정학과와 질 레슬리 타오(Tao, Jill Leslie) 교수는 2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 지내며 국제적 행정학의 흐름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국제도시 송도의 비전과 함께 글로벌 마인드를 양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외국 교수들이 가진 동력은 새로운 시각이었다. 질 교수가 바라보는 '인천대', 그리고 그녀를 통해 '인천대'의 강점을 엿본다.



글 | 편집실 통역 | 이수진(행정학과 09학번) 사진 | ALIVE STUDIO

질 레슬리 타오 교수는 시카고대학교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대학에서도 시행정학, 행정조직론, 사회과학방법론, 비교행정론을 전공했다. 하와이에서 교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건 지인의 추천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였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이 올해로 2년을 접어들고 있다.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기도 힘들었겠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있었다. 송도라는 신도시에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질 레슬리 타오 교수에게 송도의 인상은 어땠을까?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회고한다. “인천, 송도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인천과 송도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다는 점이 기억에 남아요. 인천은 산업단지이고 도시여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반면에 송도는 새로 생긴 도시여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죠.” 송도에서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있는 기분이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강점도 있었다. 바로 조용한 연구 환경 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오로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송도의 매력이에요. 지금은 제 전공 분야를 더 넓혀가는 중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이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환경 부분에서 어떻게 재정 비율을 나누고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조용한 도시 송도, 연구하기에 좋은 환경

우리 대학의 또 다른 강점은 글로벌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

의 글로벌 아일랜드라는 전망탑은 현재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이외에 교환학생 등과 교류할 수 있는 국제교류센터이다. 가끔 질 레슬리 타오 교수도 이곳을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거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 행정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새로운 이론과 기존의 이론을 전달해야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보다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질 레슬리 타오 교수의 수업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바로 나이와 한국어다. 일단 나이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가 교실에서 통하지 않는다. 번역본 없이 원서로만 공부하도록 자신의 수업에서 번역본은 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다. 분명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영어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타오 교수는 말한다.

작은 대학이 더 능동적이다

마지막으로 타오 교수는 우리 대학의 강점으로 융통성을 꼽았다. “우리 인천대학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작은 몸집을 지녔습니다. 외부 상위권 대학과 달리 새로운 사람, 정책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더 나은 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타오 교수의 바람처럼 흡수하고 창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우리 대학은 미래가 기대되는 현재를 가졌다.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대학의 모습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지녀가길 바라본다. INU

꿈의 신소재, 그래핀 연구로 주목받다

안호선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AN HO SEON

안호선 교수는 그래핀 연구로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 6월 7일자에 논문이 게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함께 연구한 김무환 포스텍 교수(WCU 첨단원자력공학부)와 이재성 교수(화학공학과), 장지욱 박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죠”라며 공동연구로 공을 돌렸다.

안호선 교수가 개발한 그래핀은 단순히 그래핀 용액을 끓여, 이때 생기는 기포를 이용해 원하는 기판 위에 바로 스펀지 형태의 그래핀을 합성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200℃의 저온에서 별다른 추가공정 없이 단 10분만에 합성이 가능한데다 이렇게 만든 그래핀은 전도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 태양전지의 전극으로 사용되던 값비싼 금이나 백금을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슈퍼 축전기(Super capacitor), 연료전지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학교를 선택한 이유

촉망받고 있는 안 교수가 우리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능성 때문이다. 우선 송도라는 국제도시에 위치한 점, 국립대학교로 수도권에 위치한 점을 꼽았다. “송도에는 앞으로 R&D 산업 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에서 국립대학교라는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연구환경도 좋아질 만큼 지금까지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보낸 안 교수는 우리 학생들의 배우려는 열정이 타 학교 학생들보다 크다고 이야기했다. “첫 부임에서 맡은 수업이 수

치해석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은 제가 전공한 분야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학생들에게 실전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학생들이 똑똑하고 열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배움에 대한 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니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제가 연구결과로 학교를 더욱 알려야 할 책임이 커짐을 느낍니다.”

교수로서의 책임감, 연구자로서의 사명을 다해

더불어 안 교수는 자신을 알아봐 준 우리 대학에 남다른 애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내파인 자신을 연구 성과만으로 교수 채용에 답을 준 대학에 성과로 보답하고 싶다고도 이야기했다. “사실 국내파인 저에게 국립대학교 교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좀 더 연구환경이 안정되고 성과를 내게 되면 학생들에게 나은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립대로 전환한 우리 대학은 2020년까지 국제학술지실적을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우수 교수를 대폭 충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영입한 우수 신입교수들은 우리 대학의 이러한 비전에 맞춰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교수는 역량을 높이고 학교는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교수로 첫 발을 내딛는 안 교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더욱 튼튼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연구공동체 아래 상호협력 아낌없는 연구 투자와 행정적 지원으로 현재보다 기대되는 우리 대학의 미래를 신입 안호선 교수에게 걸어본다. INU



전 세계적으로 꿈의 신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은 그 발견만으로도 전자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얻고 있다.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wearable computer) 등을 만들 수 있는 이 소재는 전자정보 산업분야의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최근 가장 핫(hot)한 연구 분야이다.

올해 3월 부임한 안호선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그래핀 연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다. 34세라는 젊은 나이이지만 연구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는, 우리 대학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안호선 교수를 만나보았다.

글 | 편집실 사진 | ALIVE STUDIO

열심, 전심, 진심의 힘을 믿는다

제11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취임한 옥동석^{무역학부 교수}



※한국조세연구원은 7월 16일로 명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6월, 우리 대학 무역학부 옥동석 교수가 임기 3년의 제11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가의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해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글 | 편집실 사진 | ALIVE STUDIO

옥동석 교수는 “강에 살던 물고기가 바다로 나온 느낌입니다. 긴장이 되고 또 그만큼 기대가 큼니다”고 조세재정연구원장 취임소감을 전했다. “교수로서 연구실과 강의실, 그리고 책과 논문 속에서 유명하며 개인적 몰입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조세연구원장이라는 직책에 부합되게 조직의 리더로서 운영 및 역할 설정을 위해 남의 손과 발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혼자서 아닌 ‘같이, 더불어’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학자이자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에 몰입했던 어제의 역사를 배경으로 정부기관의 신임 기관장으로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새로 쓰게 될 내일에 대한 다짐이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조세와 재정 연구로 국민행복 실현을 지원할 것

오늘날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조세 및 재정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 경제의 중추인 공공정책(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연구원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현실적 경제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옥 교수는 “경제정책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OAK DONG SUK

있습니다.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범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줍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및 통일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서 더 힘을 쏟겠습니다”고 했다.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도, 국정의 중심이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변환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바람을 불어넣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옥 교수는 지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선정을 주도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을 이끌어 박근혜 정부의 브레인이라는 평을 받았다. 과거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재정개혁단 재정3팀장,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정부회계 기준 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협력과 합심의 인천대

1987년 우리 대학과의 인연을 시작한 옥 교수는 대학발전본부장, 산학협력단장, 동북아물류대학원장, 동북아경제통상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의 변화현장에서 있었다. 이에 우리 대학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 인천대는 국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한 변화를 거친 대학입니다. 중심성성(衆心成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단결해서 성을 이루듯’ 매 변화의 순간마다 발전과 성장이라는 대의 아래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변화의 동력이 구성원의 합심으로 인해 더욱 강력해졌다는 게 인천대만의 강점입니다. 또한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인천 시민들이 보여준 애정과 협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130여 만명의 인천 시민들이 우리 대학의 국립대 전환을 지지해주었습니다. 변화의 과정마다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열심으로 준비하고 전심으로 정성을 쏟으며 진심으로 대했기에 내실 있는 도약을 위해 다시 힘을 합할 것으로 믿습니다.” INU





KIM SEONG GEUN

경찰의 길을 열어준 인천대

**제주지방경찰청장에 취임한
김성근** 행정학과 동문



우리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성근 동문이 지난 4월 12일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경찰이 운명이라는 김 동문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87년 간부후보 35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글 | 편집실 사진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는 관광도시라는 특성상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 청장은 제주치안의 책임자로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제주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만들겠다”며 제주의 치안과 미래의 청사진을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나오듯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임무다. 그렇기에 경찰은 희생과 봉사의 힘든 자리다. 그러나 또 그만큼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책임진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리다. 행정학도였던 그의 경찰 입문기가 궁금했다.

“학창 시절 법학과 강의를 일부 수강했는데 법학과 학생들보다 시험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 나를 눈여겨보신 교수님의 권유로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된 행정학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더욱이 당시 경찰간부 후보는 동국대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선후배 간 수험정보라도인지 입직 경로가 다양했지만 인천대는 개교한 지 10년이 안 된 신설대학이다 보니 선배가 없어 정보가 거의 백지상태였단다. 고군분투하며 시험에 매진했던 김 청장은 시험을 앞둔 거의 마지막 3개월 동안은 3시간 이상 잠을 잔 기억이 없다고 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 경찰이라는 운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김 청장.

“첫 근무지는 청와대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이었습니다. 정식 출근 전 3주 동안 공수특전사에서 사격, 체력 등 경호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된 훈련이었지만 대통령 경호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 근무자 중 시험으로 승진을 하게 된 사례는 내가 처음이었는데 서울청 경감 응시자 중 3등으로 합격을 하여 주변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 뿌듯했습니다.”

경찰제복 입은 후배들을 기대하며

김 총장은 경찰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만큼 국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에 경찰로서의 열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몸을 던져 일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척결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된 조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공직을 선호하는 현상 등이 반영돼 경찰지망생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경찰 선배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 청장은 인천대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오늘날 경찰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필요 합니다. 우리 인천대 후배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우리 대학의 내일을 위해 애정 어린 말을 전했다.

“국립대학이 되었으니 명실상부하게 이제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인천대가 발전하려면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우수 인재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은 아카데미, 즉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지성인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교육환경이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NU



안녕하세요. 말라가대학교에서 교환학생 두 학기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생명공학 전공 10학번 구기욱입니다. 말라가대학교는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이고 유럽에서 제일 큰 한국도서관이 있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년간 외롭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달 열리는 언어교환 활동들을 통해 더 많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라나다나 바야돌리드 등 다른 지역에 있었던 한국인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페인 친구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잘 모르거나 심지어는 한국도 중국말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많고 말라게노(말라가 사람들) 특유의 활발하고 오지랖 넓은 성향 덕분에 자칫하면 외로울 수 있는 타지 생활이 정말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한 뜻깊은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붉은 풍등들

지난 겨울에는 친구인 프랑의 차를 타고 함께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를 론다부터 가우센, 카사레스, 사하라 데 라 시에라 등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떠날 때는 산을 타고, 돌아올 때는 해변을 따라 드라이브했는데 산 너머로 들판처럼 보이는, 교회를 낀 하얀 마을들이 너무도 아름다워 마음속이 온통 감탄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옛날에 전쟁이 많아서 사람들이 산 위로 피신을 해서 살다보니 이렇게 높은 곳까지 마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풍경에 매료된 저를 위해 친구가 차를 세워 바다 건너를 가르쳤습니다.



1. 산 꼭대기에 위치한 마을, 가우센
2. 말라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의 도서관, 각 단과대별로 도서관이 있고 그 외에 가장 큰 공동도서관이 있다.
3. 산 후안의 날, 말라게따(말라가의 해변)에서 자정에 풍등 날리기
4. 말라가대학교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아홉 번째 언어교환행사에서
5. 말라가대학교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아홉 번째 언어교환행사에서의 밤하늘을 수놓은 붉은 풍등들
6. 인천대어학당 '짝꿍' 프로그램을 통해 친해졌었던 주안의 초대를 받아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 몬세랫에서

아름다운 지중해의 도시, 말라가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글 · 사진 | 구기욱 생명공학전공 10학번,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교환학생



안개사이로 자세히 보니 아프리카 대륙이 보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아프리카 대륙은 그냥 멀고 먼 미지의 땅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조금만 더 가면 닿을 듯한 지근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산 후안의 날(6월 23일)에는 친구들과 밤 12시에 말라게따 해변에서 풍등을 만들어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날은 다같이 해변에서 불놀이를 하며 학기가 끝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의 과제와 노트들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자정의 칙흙같은 밤 하늘에 초승달마냥 길게 휘어진 해변을 따라 이곳저곳에서 소원을 빌어가며 날려보낸 풍등들이 수십 개씩 하늘을 향해 붉은 빛을 발하며 올라가는 모습의 그 황홀함이란! 한국에 돌아가서도 밤하늘을 볼 때마다 종종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엔 건국대, 덕성여대, 단국대, 시립대, 외국어대 등에서 온 한국 학생들과 오랜만에 만나 말라가에서의 마지막 인사도 나눌 겸 종강총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말라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데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저 처럼 좋은 추억들만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종차별이나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들과의 문제들,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겪었던 갖가지 에피소드들,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얘기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모두, 즐거움을 통해서든 고단함을 통해서든 하나 이상씩은 배우고 느끼고 얻어간다는 것에는 이심전심이었었습니다.

피카소의 고향 말라가에서 소중한 추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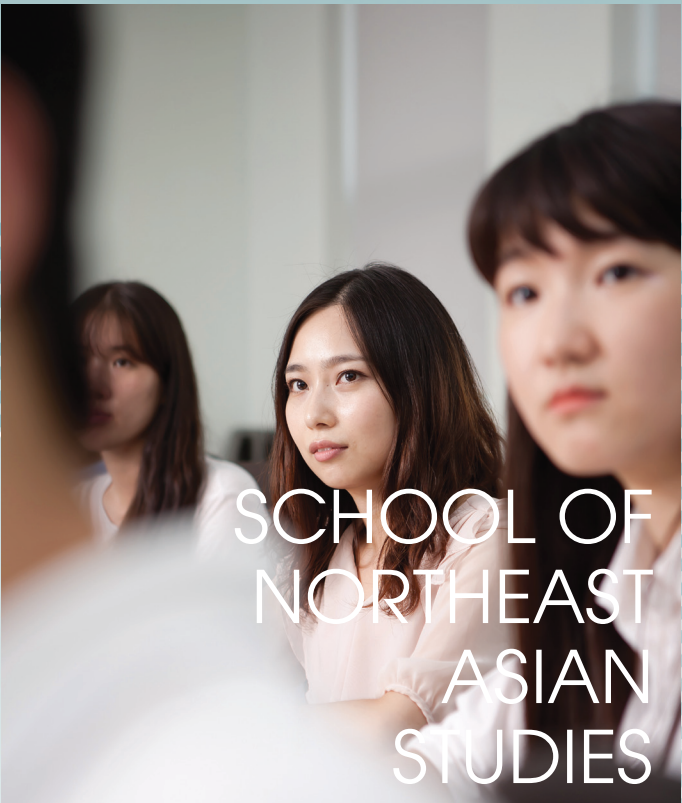
만약 제 주위의 누군가가 지금 말라가대학교 교환학생 신청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면 저는 도전해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매 학기마다 독일에서 많은 학생들이 말라가의 교환학생으로 옵니다. 좋은 날씨, 해변을 찾아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말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를 알아가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말라가는 피카소의 고향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곳에 오셔서 낮에는 아름다운 말라가 해변을 따라 혼자 걷기도 하고, '노체 엔 블랑코(이 날은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 더 많은 사람에게 문화의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서 새벽까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열려 있고 입장료가 공짜입니다)'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핀토 데 베라노(레드 와인에 레몬음료를 섞은 스페인 여름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INU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리더를 꿈꾸는 국제통상 실무 인재들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글 | 편집실 사진 | ALIVE STUDIO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동북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쫓아 우리 대학은 1998년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신설했다. 대학 4년간 다양한 국제활동을 통해 전천후 인재를 기르는 이곳은 파격적인 장학금 지원과 함께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학부로 거듭나고 있다. 송도 시대, 글로벌 캠퍼스를 외치는 우리 대학의 미래와 함께할, 그 위상이 나날이 커져가는 동북아국제통상학과를 소개한다.



학부설립 배경에서부터 세계화라는 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는 송도캠퍼스 안에서 최고의 시절을 만났다. 우선 우리 대학이 위치한 송도는 지정학적 의미가 남다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인천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까지 국제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송도라는 곳이다. 거기에 국립대로 전환과 함께 특화된 교육과 연구, 시와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덧붙여져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타 대학의 통상학과 다른 차별성을 갖추게 됐다.

국제화, 세계화에 맞춰진 인재 양성 시스템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경쟁력은 세계화, 국제화에 맞춰진 전천후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에 맞춘 커리큘럼에서 나온다.

첫 번째,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국제통상 실무인력을 기르기 위해 1학년부터 바쁘게 공부해야 한다. 입학 초 중국·일본·미국·러시아통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외국어와 함께 경제학과 같은 기초과정을 밟고 2학년 때부터 전공 지역의 통상학을 공부한다.

수업과정은 까다롭다. 전공지역 외국어 40%, 경제학 30%, 지역경제 30%로 구성되며 '동북아 지역전문가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4년간의 전 수업 중 80%가량이 해당 지역 언어로만 진행된다.

두 번째 경쟁력은 의무화된 유학제도에 있다. 1학년 때 언어교육을 바탕으로 2학년과 3학년에는 전공학과와 관련된 국가로 1년간 유학을 다녀와야 한다.

이는 학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부담을 느끼는 코스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 국가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현지에서 느끼고 체험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의무적인 커리큘럼은 국제비즈니스맨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세 번째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경쟁력은 커리큘럼을 받쳐주는 최고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입학생은 모두 장학생이다. 매 학기 3.5점 이상이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학 중 수석을 차지하면 추가 장학금이 지원된다. 그 외에도 특별장학금, 유학지원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거기에 노력한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청운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다.

중국·일본·러시아·미국통상의 전문가를 키운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총 네 개의 학과로 나뉜다. 중국통상, 일본통상, 러시아통상, 미국통상이다. 중국통상에는 김민수 교수와 김병천 교수가, 일본통상에는 정훈 교수와 모리카나(일본) 교수가, 러시아통상에는 박재훈 교수·성원용 교수·레베데바 리우드일라(Lebedeva Liudmila) 교수가, 미국통상에는 한도숙 교수와 조엘(미국)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각 학과의 교수진은 국가별 언어, 경제, 문화, 역사, 사회 등을 가르치고 있다. 중국통상은 중국인 사회를 배경을 공부하면서 기타 중국과 관련된 국가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중국 사회도 배운다. 일본통상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교류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준 높은 일본어 구사는 물론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능통한 통상교섭 전문가 양성한다. 러시아통상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친 러시아연방의 지리상 특성을 이해하고 국제정치 안보, 경제적 가능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기른다. 미국통상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알고 미국과의 교류에 능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내실을 추구하는 교육, 성과로 말하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에 입학한 학생들 중 일부는 명문대 합격을 마다하고 이곳을 택하기도 한다. 이곳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적은 인원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함께 4년간 의무적인 기숙사 생활이 크게 작용한다. 전 학년이 기숙사 생활은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대학 1학년 시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타 학부보다 적은 인원은 원활한 교수·학생 지도를 가능하게 한다. 정용근 학생(4학년, 러시아통상)은 "1학년 때 어떤 학과로 진로를 정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통상학과 선생님께서 러시아의 비전을 밝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러시아통상학에 만족합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4년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실력으로 말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INU

지정의를 고루 갖춘 통상전문가 양성할 터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한도숙 교수(학부장)

동북아국제통상학부만의 자량이 있다면?

학생과 교수 간의 지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점입니다. 독후감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면담방법은 한 학기에 다섯 권 정도 책을 읽고 독후감을 씁니다. 그 독후감을 토대로 담당 교수와 1:1 면담을 진행합니다. 여럿이 하는 독서 토론이 아니라 개인별로 진행해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진로, 고민상담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을 넓히고 있습니다.

초창기 학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학생 지원은 더욱 많아지고 졸업생, 재학생들도 점차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진출해 좋은 기관,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부의 성과 측면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후감 면담과 같은 상담 프로그램도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인성교육을 중시하시는 이유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리더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국제적 감각을 위해 언어, 사회, 경제 등의 학문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리더의 자질을 갖춘 균형 잡힌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균형 잡힌 인재는 지식과 더불어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로서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 사람의 덕목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서 지식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가르침의 전달'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학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더불어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때로는 멘토로 다가가며, 다양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개항장의 패스트푸드, 자장미엔 그리고 짜장면 인천의 음식문화

글 | 이종수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자료 | 인천학연구원 자료집

토박이보다 더 많은 외지인이 거주하고 드나드는 인천은 개항 130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인천항으로 외국의 많은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천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노동자와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꾼으로 가득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노동자들이 한 끼 식사 해결을 위해 빠른 속도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인천의 개항 역사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된 인천의 음식을 살펴보자.

ALL THAT INCHEON



●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1883년 개항과 더불어 근대도시로 성장하였다. 특히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지인 조계(租界)가 형성되면서 청국전관조계지역(중국인 거주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중국인들만의 화교촌이 형성되어 지금의 중화회관과公所(公所) 등을 짓고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개항을 하고 나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천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인천항에는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는 특히 산둥 사람들이 많았다.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빨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즉석에서 만들어 먹었던 패스트푸트가 바로 춘장을 이용하여 만든 짜장면이었다. 중국 '자장미엔(작장면)'은 콩, 밀, 소금 등을 재료로 발효시킨 침면장(醬麵醬)을 사용하고, 우리의 짜장면은 침면장을 흉내낸 춘장을 사용한다. 1905년 전후 산둥지방에서는 중국 노동자들이 주로 야식으로 볶은 춘장을 면에 비벼 먹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부두 노동자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1950년대 중반에 캐러멜이 첨가된 춘장이 나오면서 한국식 짜장면의 형태를 갖추었다. 이때부터 색깔이 검고, 단맛이 나게 된다.

● 강화도 숭어와 순무

나이가 들수록 혀끝을 자극하는 맛보다 어린 시절 밥상 머리에서 마주했던 소박한 맛을 그리게 된다. 뇌리에 각인된 맛, 어머니의 손맛과 고향의 맛에 대한 기억이다. 강화도에서는 그런 맛을 내는데 숭어가 빠지지 않는다. 특히 숭어는 콜라겐이 풍부하다. 조선시대 정약전이 저술한 어류학서 『자산어보』에서는 맛이 좋고 물고기 중에 제일이라 했고, 『동의보감』은 숭어를 먹으면 위가 편안해지고, 오장을 다스리며, 몸이 튼튼해진다고 했다. 강화도에서는 숭어로 만든 '맹장국'과 '겉절이', 구이와 튀김, 어란, 숭어만두, 숭어찜 등이 자랑거리이다.

한편, 강화도 사람들은 숭어 매운탕에 순무김치를 곁들여 먹는다. 강화도 순무 김치는 무의 달콤한 맛과 배추의 알싸한 향을 함께 지닌다. 만청(蔓菁), 곧 강화 순무의 이야기는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화도 해군학교 군사교관으로 파견은 영국의 콜웰 대위가 고종이 마련해준 '거처' 뒷마당(강화읍 갑곶리)에 씨앗 하나를 심는다. 보랏빛이 도는

영국의 순무 종자를 우리 땅에 처음 심은 것이다. 이후 흰뿌리가 특장이었던 조선의 토종 순무와 만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늘날의 강화순무가 탄생한다. 개항장의 개방성이라는 특성이 더해져 영국과 한국이 결합돼 강화순무라는 독특한 재료가 만들어진 것이다.

● 용현동 물텀병이 거리

인천에서 수십년 동안 사랑받아온 대표음식 중에는 물텀병 이탕도 빼놓을 수 없다. 싼 가격 덕분에 부두노동자들의 술안주로 제격이었다. 그런데 '물텀병이'를 그냥 '아귀'라고 알려주면 재미가 없다. 바다에서 풍부한 물산을 사시사철 건져 올렸던 인천은 그물에 걸린 아귀를 재수 없다며 버렸다. 그때마다 바닷물 속으로 '텀병 텀병' 들어가는 아귀를 인천의 어부들은 '물텀병'이라 했고, 그걸 찌거나 탕으로 요리했으니 '물텀병이찜'이나 '물텀병이탕'이라 했다. 인천 이외 지방에서 흔히 '아귀탕' 또는 '아귀찜'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인천의 특색음식 거리(인천관광안내지도, 2011)는 동인천 삼치거리, 북성동 원조 자장면거리, 하평동 냉면거리, 송현동 순대골목, 연안부두 해양센터 뱅뱅이 회무침거리, 연락골 추어마을, 송도유원지 앞 꽃게거리, 강화 더리미 장어거리 등을 들 수 있다. 인천 시민이 즐겨 찾는 음식의 메이커 신포시장 역시 인천의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다. 닭강정으로도 유명하지만 신포순대, 만두 등으로 유명한 이곳은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역사가 오래된 시장으로 손꼽힌다. INU



함께 나누는 즐거움, 인천 공동체



불어로 '시, 읍, 면'을 뜻하는 교원(Commune)과 인천의 합성어인 '인천 교원'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Win-Win의 현장을 소개하는 장이다. 2013년 5월 우리 대학은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통해 지역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랑나눔 교직원회의 자선음악회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해피투게더와의 협약 체결이 그것이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성의 전당, 우리 대학의 이름을 알린 현장을 들여다 본다.



5월 21일 열린 사랑나눔 자선음악회

교직원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우리 대학에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랑나눔 교직원회(회장 : 디자인학부 경노훈 교수)'가 있다.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 교내 단체로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우리 대학의 이름을 알리고 음악회에서 모인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다.

올해 8회를 맞이하는 자선음악회는 작년과 다른 특별한 지원군을 얻었다. 교직원으로만 구성됐던 음악회에 재학생이 참여해 한층 다채로운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 늦은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열린 사랑나눔 자선음악회는 대학교 직원들은 물론 재학생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직원 식당에서 조촐히 진행됐지만 올해는 복지회관에서 큰 무대를 가졌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음악회는 중어중국학과 장정아 교수의 사회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색소폰, 기타 연주, 난타 공연, 실내악 6중주, 4중창, 독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색소폰 연주를 들려 준 경노훈 · 김영관 · 김익수 · 이호명 교수는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연습해온 색소폰 실력을 보여줬다. 이밖에 이지은 · 문은현 · 박찬진 · 정중태 · 최윤경 교수가 이끄는 INU 앙상블의 하모니와 류인모 · 변윤식 · 이기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UI합창단의 노래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거기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무용 및 뮤지컬, 플롯 등을 더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정성스럽게 마련된 무대에서 관객도 연주자들도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자선음악회. 경노훈 사랑나눔 교직원회 회장은 "교수와 직원, 학생이 참여한 감동적인 무대였다"며 "많은 이들에게 기부와 나눔에 대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음악회의 소감을 밝혔다.

음악회를 통해 모금한 기금은 올해도 남구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피투게더 대학생 자원봉사단 협약식

국제교류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와 '해피투게더' 자원봉사 협약

함께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우리 대학에서는 인천시의 다양한 단체와 협약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국제교류원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자원봉사 협약식을 가졌다. 5월 13일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외국인 교환학생,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및 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앞으로 연수구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2월 말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4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월요일과 금요일 문화, 정서, 체육 멘토링을 실시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교환학생으로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년 2회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한다.

이명현 국제교류원장은 "지역공동체 연대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에도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고, 황규옥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장은 "아동들이 세상을 향한 열정과 따스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NU

7급 전습직원 선발시험 합격률 4년 연속 전국 1위

●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 및 지역대학의 우수인재가 공직임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인재(7급 전습직원)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합격률이 201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전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당당히 1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글 | 취업경력개발원



기수(연도)	분 야	소 속	성 명
4(2008)	행정	경영학과	김지홍
5(2009)	행정	경제학과	남상인
6(2010)	행정	법학과	인재서
	행정	중국통상전공	한혜원
	기술	컴퓨터공학과	이지은
7(2011)	행정	행정학과	이은결
	기술	전자공학과	유소현
	기술	컴퓨터공학부	이상우

기수(연도)	분 야	소 속	성 명
8(2012)	행정	경영학과	이상민
	행정	행정학과	정선희
	기술	컴퓨터공학부	임동진
9(2013)	행정	사회복지학전공	김민지
	행정	중국통상전공	장휘람
	행정	행정학과	심인보

● 지역 인재추천채용에 선발된 우리 대학 합격생 명단

전습직원 선발시험(지역인재추천채용제)은 전국 광역 시도의 지역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 진출의 기회가 적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매년 4명에게 공직자로서의 기회가 부여되는데 응시생은 상위 10% 이내의 학과 성적과 토익 775점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다. 교내 자체 모의 PSAT(공직적격성시험) 및 면접을 통하여 우리 대학 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4명이 안전행정부의 PSAT, 면접 전형 통과 후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최종합격자는 전습직원으로 전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1년간 전습근무를 수행한 뒤 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절차를 거친다.

우리 대학은 2005년부터 전습직원 선발시험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근 대학과의 경쟁은 그리 쉽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대학의 합격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2008년, 2009년 각 1명씩 합격생을 배출하더니 급기야 2010년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근 대학의 아성을 깨고 우리 대학 학생 3명이 합격한 것이다. 더욱이 4년 연속 3명의 합격생을 배출해 당당히 전국 1위의 영예까지 거머쥐었다. 이번까지 모두 9기가 진행된 전습직원 추천에서 우리 대학은 4~5기 1명씩, 6기부터는 매년 3명씩을 최종합격자(8기까지 총 11명)를 내면서 인천 지역에 할당된 4명 중 75%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도 9기 전습직원 선발에서는 행정분야 7.2:1, 기술분야 3.6:1의 필기시험 경쟁률을 보였으며 내달 초 면접을 통해 분야별로 각각 45명씩 최종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습직원 추천자격에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자격도 추가 포함되며 안전행정부는 '2014년도 전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올 하반기에 공고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의 미래는 밝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이란 결실을 얻게 되는 법! 앞으로도 전습직원 선발시험이 진행되는 한 저력 있는 국립대법인 인천대학교로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INU

최성을 총장, 지역 우수기업체 방문

최성을 총장이 지역 우수기업체를 방문하고 있다. 우리 대학과 인천지역 우수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산학연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우수기업에 발걸음을 향하여 학생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해소와 대학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성을 총장은 영림임업을 시작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SK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지역의 우수기업체를 방문, 취업률 향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영림임업(대표 황복현)에서는 대학발전기금을, 포스코건설에서는 산학 MOU체결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영림임업의 황복현 대표, 포스코건설 이동만 부사장, 현대제철 박순근 전무, 동국제강 제국환 상무 등의 임원들을 우수기업 전문교수로 위촉하여 우수기업 CEO들의 경영철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마련해야 할 목표와 인재상에 대한 강의를 부탁했다.

최성을 총장은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교육하는 등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우수기업에 인력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기업 방문계획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비추었다.



지역의 우수기업체를 방문한 최성을 총장. 왼쪽부터 두산인프라코어, SK에너지, 동국제강(주) 인천제강소

올해 우리 대학은 전체 2,930명의 신입생 중 약 54.5%인 1,597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수시모집 1차에서 716명, 2차에서는 881명이며 원서 접수는 수시 1차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2차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대학의 2014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징은, 대부분의 전형이 학생부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한 단계 별 전형이라는 점이다. 다른 대학과 달리 논술이나 적성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나, 입학사정판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입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학교 교과공부에 충실하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 2014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작년 수시1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이 2차로 이동하되 수시 1차에서 '일반학생 I' 전형을 신설했고 작년 수시 1차 특수목적고 출신자 전형과 수시 2차 지역우수인재 전형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시 2차 일반학생, U차세대리더 전형을 각각 일반학생 II, INU차세대리더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형방식은 작년과 동일하다. 특기자 전형요소 반영비율의 경우도 체육특기는 작년 서류 100%에서 올해부터는 서류 60%, 면접 40%로 변경된다. 기타 변경사항은 반드시 수시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 학생부가 좋아야 유리

우리 대학 수시는(특히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시 1차는) 학생부 100%로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이므로 학생부가 매우 중요한 전형요소가 된다. 물론 학생부 성적보다는 다른 전형요소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형도 있다. '특기자' 전형이나, 수능최저기준이 높은 'INU차세대리더' 또는 '교과성적우수자' 우선선발의 경우엔 학생부보다는 각각 서류(실적)나 수능최저기준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면접고사로 2단계 당락 결정

학생부는 등급 간 점수차가 별로 나지 않지만 면접은 점수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면접은 '일반영역'과 '전공영역'으로 나뉘며, 개인당 10분 내외의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영역에 관한 최근 3개년도 기출문제는 현재 우리 대학 홈페이지 입학안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공영역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기초지식(교과 또는 시사)과 발전가능

성(지원동기, 학업계획, 비전 등)을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은 그간의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모집단위에 지원해야 하며, 전공기초지식과 아울러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학업을 수행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전공적합성과 학업계획을 기본으로, 평소 독서를 즐기고 고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상위권 학생은 '동북아국제통상학부'와 'INU 차세대리더' 전형 지원을!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특성화 학과로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가 있다. 입학생 전원에게 4년 등록금 전액 면제, 1년 해외유학, 기숙사 생활의 특전을 부여한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교과우수' 트랙과 '외국어우수' 트랙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데, 학생부가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공인어학성적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외국어우수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한편 인천 유일의 국립대학 법인인 우리 대학의 비전을 실현할 리더를 선발하기 위한 'INU차세대리더' 전형 입학생에게는 4년간 전액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전형방식은 학생부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이나 수능최저기준이 높아

사실상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선택의 폭이 매우 넓고, 학생부 성적이 비교적 높지 않은 장점이 있다. 수능 특정영역(2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 단 자연계는 수학/과학 중 반드시 1개 영역 포함)에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 수시 2차는 수능최저기준이 변수

수시 2차에서는 '일반학생 II'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이 걸려 있다. 일반학생 전형의 경우 수시 2차임에도 수능최저기준이 없어 경쟁률과 입학성적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작년 수시지원 6회 제한으로 대부분 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지만 일반학생 전형만 평균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으로, 유형이 영역별로 지정되어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한다면 수능최저로 인해 경쟁률이 낮아지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 수능최저가 없는 전형에 비해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은 수능성적에 따라 우선(40%), 일반(60%)선발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수능최저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수시2차에 쓸 수 있는 전형의 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2014학년도 우리 대학 수시모집 가이드

국립대가 된 인천대학교, 수시모집 공략은 이렇게!

글 | 입학관리팀

2013-2014 대비 수시모집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모집인원	구 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수시	1차	776	26.5	716	24.4
		2차	725	24.8	881	30.1
		계	1,501	51.2	1,597	54.5
정시		1,428	48.8	1,333	45.5	
입학사정관전형			없음		없음	
전형유형 변경 여부			• 수시1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학생부 60%, 면접 40% ※ 수능최저기준 미적용 • 수시2차 <지역우수인재> 전형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학생부 60%, 면접 40% ※ 수능최저기준 적용		• 작년 수시1차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 수시2차로 이동 ※ 학생부 100% (일괄합산, 면접 폐지) ※ 수능최저기준 적용 • 수시1차 <일반학생 I> 전형 신설 – 1단계 : 학생부 100% – 2단계 : 학생부 60%, 면접 40% ※ 수능최저기준 미적용 • 작년 수시1차 <특수목적고출신자> 전형 → 폐지 • 작년 수시2차 <지역우수인재> 전형 → 폐지 • 수시2차 <일반학생>, <U차세대리더> 전형 → <일반학생 II>, <INU차세대리더>로 명칭 변경 ※ 전형방식 작년과 동일	
수능최저기준 변경			• 수시2차 <U차세대리더>전형 – 인문/자연 : 2개 영역 1등급 • 수시1차 <교과성적우수자>전형 ※ 수능최저기준 미적용		• 수시2차 <INU차세대리더>전형 – 인문 : 국어B-수학A-영어B, 사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3 이내 – 자연 : 국어A-수학B-영어B, 과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3 이내 (수학/과학 중 반드시 1개 영역 포함) – 소비자/패션 : 국어B-수학A-영어B, 사/과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3 이내 • 수시2차 <교과성적우수자>전형 – 인문 : 국어B-수학A-영어B, 사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 자연 : 국어A-수학B-영어B, 과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수학/과학 중 반드시 1개 영역 포함) – 소비자/패션 : 국어B-수학A-영어B, 사/과탐(1) 중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 등급합 5 이내는 모집인원의 40% 우선선발 ※ 사범대는 우선-일반선발 없이 등급합 5 이내	
특기자 전형요소 반영비율 변경			<체육 특기> 실적(서류) 100%		<체육 특기> 서류(실적) 60%, 면접 40%	

※ 입학성적 상담 및 문의 : 032-835-0000 입학관리팀



최성을 총장, '열공국수 나눔 행사' 참여

최성을 총장은 6월 17일 저녁 8시 학생식당에서 '열공국수 나눔행사'에 참여해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국수를 배식했다.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열공국수 나눔행사'는 기말고사 기간(6월 17일~18일) 동안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수 드시고 기분 Up, 성적 Up 하자'는 취지로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후원으로 준비됐다. 이번 기말고사 기간에 준비된 '열공국수'는 총 1,000그릇(하루 500그릇)이며, 최성을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 교수들이 직접 배식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국수를 나눠먹으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중국 길림사범대학 부총장 일행단 접견



6월 10일 총장집무실에서 자매대학인 중국 길림사범대학의 고림파(Gao Linbo) 부총장, 채인준(Cai Renjun) 국제교류센터장, 류염청(Liu Yanqing) 대학원생부 부주임, 마춘광(Ma Chunhong) 교무처 부처장 일행이 방문해 양 대학 간 국제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성을 총장은 "인천대는 거점 국립대학 역할에 걸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 대학 학과 차원의 실질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고림파 길림사범대학 부총장은 "인천대와 교수, 학생 교류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다"며, "이번 방문이 양 교간 국제교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자치발전 증진'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과 인천광역시의회가 6월 10일 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시의원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발전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회와 대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 및 공동 협력체계 구축, 의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 시의원이 대학원 재학 시 수강료의 50% 장학금 지원, 공공복리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공동참여 등이다.

창업보육센터, '2013 AABI 올해의 창업보육센터 장려상 수상'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주관한 '2013년도 AABI 올해의 창업보육센터상' 선정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3년도 AABI 올해의 창업보육센터상' 선정은 전국 대학 등 기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청 지정 278개의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이 중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 6개의 센터만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엔젤클럽을 공동으로 결성하여 엔젤포럼·엔젤투자마트 등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유망창업기업 우수제품 발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간정보 수도권 거점대학' 2년 연속 선정

우리 대학이 5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발표한 '2013 공간정보 수도권역 거점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공간정보 거점대학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총괄), 국토연구원(주관) 하에 권역별로 선정된 공간정보 거점대학이 공간정보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교육비는 전액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교육신청 및 기타 문의는 도시건설공학전공 사무실(032-835-8975~8786)로 하면 된다.

(주)포스코건설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리 대학과 (주)포스코건설(부회장 정동화)이 5월 3일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36층 영상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기타 전반적인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협약의 세부내용으로는 인적자원 및 기술의 상호 교류, 산학공동 기술개발 및 시설의 공동 활용,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재학생 현장 기술연수 및 견학기회 제공,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등이다.

2013학년도 우수기업 전문교수 위촉식 개최

우리 대학이 4월 25일, 대학 교수회관 3층에서 2013학년도 우수기업 전문교수 위촉식을 개최했다. 총 34명의 우수기업 전문교수를 위촉한 이날 행사에는 최성을 총장을 비롯하여 포스코건설 이동만 부사장, 삼성전자 김병구 전무, KT 김재교 상무 등 34개 기업체 주요 임원급 전문교수들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은 2009년부터 우수기업 전문교수 제도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체에 115명의 졸업

'창업동아리 발굴대회 시상식' 개최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이 5월 8일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3 창업동아리 발굴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한 27개 팀 중에서 지난 4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21개팀 100여 명의 학생과 최성을 총장,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여했다. 수상 팀에는 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기업 마케팅을 개발한 보노보, 다기능 마우스를 개발한 BUIT 등이 있다. 선발된 21개팀에게는 창업지원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9월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를 통해 각 팀들이 준비한 창업사업에 대한 전시 및 발표도 계획되어 있다.



생 취업과 대학발전기금 1억 2천만 원, 장학금 7천만 원 등을 유치하였으며, 47회의 취업특강, 기업체 현장 실습 62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위촉된 우수기업 전문교수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위촉되어 취업 관련 특강, 현장실습 지도 및 협력, 졸업생 취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中 대련외국어대학교 손옥화 총장과 국제교류활성화 논의



4월 4일 우리 대학과 자매대학인 중국의 대련외국어대학교가 양 대학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및 공자학원 운영 현황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성을 총장은 "대련외국어대학교는 학생, 교수뿐 아니라, 공자학원 운영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옥화 총장은 "인천대가 동북아 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련외국어대학교에도 동북아 연구 관련 박사과정이 있는데, 향후 인천대와 한·중·일 동북아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학영재교육원, 2012학년도 연차평가 최우수기관(등급) 선정

과학영재교육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전국 25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학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기관(등급)에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2008년까지 11년 연속, 2011년에 이어 금번 2012년까지 총 13회 최우수 영재교육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과학영재원은 2013년 현재 초등과정 156명(다문화 29명, 심화 64명, 사사프로젝트 63명) 중등과정 247명(심화 100명, 사사준비프로젝트 83명, 사사 64명) 등 총 403명의 인천지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한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5개 학과, '공학교육인증(ABEEK)' 획득

우리 대학 건설공학,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 전자공학 등 5개 학과 심화 프로그램이 2012년 공학교육인증(ABEEK) 평가에서 모두 인

증을 획득했다. 지난 2005학년도부터 이를 도입해 2008년 공학교육 인증평가에서 예비인증을, 2010년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재 건설공학,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 전자공학 등 5개 학과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태 교수, SCOPUS급 국제저널 편집장 선임



여기태 교수(물류대학원)가 SCOPUS(스코퍼스, 국제논문인용색인)급 국제 저널인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의 편집장(Editor-in-Chief)으로 3월 선임돼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SCI급/SCOPUS' 학술지 논문은 국내 대학의 연구수준 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2008년 우리 대학에 부임한 여기태

교수(전공 : 해운 및 항만물류)는 2012년 9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계항만경제학회(AME)에서 'Modelling Port Choice in an Uncertain Environment(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항만 선택에 관한 모델링)' 논문으로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랜더(Lander University)대학교 학장단과 교류확대방안 논의



3월 20일 미국의 랜더대학교(Lander University) Robert Barrett(경영대학장), David Slimmer(자연과학대학장)가 우리 대학을 방문해 양 대학 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성을 총장은 "랜더대학 학생들이 더욱 많은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랜더대학 David Slimmer 자연과학대학장은 "교환학생 운영 관련 건의사항을 주시면 적극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양 대학은 그동안 교환학생 교류, 단기연수,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56명의 학생들이 교류를 하였으며, 3월 현재 우리 대학 학생 8명이 랜더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발전기금 장학생 전달식 가져

우리 대학은 4월 11일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70명의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 15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수여했다. 우리 대학은 올 한해 연간 총 140명의 학생에게 총 2억 1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여식에 참여한 최병길 부총장은 “소중하게 납부한 대학발전기금은 인천대학교가 지역거점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고귀한 마음을 오래 기억하고 인천대학교가 먼저 달라졌다는 각오로 전 교직원이 대학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교류처장인 김재영 행정학과 교수 역시 “발전기금 장학금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인천대학교 학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학교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장학금의 뜻을 이해해 주기를 당부했다.

국립대학법인으로서는 우리 대학은 행복교육,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인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기안정화 및 발전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국가 및 인천시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대내외 적극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 이러한 시기에 전 교직원이 대학발전기금 조성에 솔선 참여하여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약정 교직원이 50여 명이며 자동이체하는 교직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유한 주식을 기부하는 교수님, 용돈을 아껴 참여하는 학생, 거금을 납부하는 은행, 모교발전에 동참하는 동문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총동문회, 1천만 원 쾌척

우리 대학 총동문회(회장 정수영)에서 후배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1천만 원을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했다. 총동문회는 2005년과 2007년 각각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정수영 총동문회 회장은 기부금은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성을 총장은 총동문회의 소중한 기부에 감사를 전하며, 동문선배들의 깊은 후배사랑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학금 등 학생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일반대학원 원우회, 1천만 원 전달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원우회(회장 김동한)는 4월 2일 교수회관 3층에서 최성을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발전기금은 지난해 연말부터 대학원 원우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이다.

김동한 원우회장은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립 인천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대학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은 석·박사 600여 명의 원우회원이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 인천대학교 후원의 집

상호명	업종	대표자	전화번호	위치
충남집	한식요리 전문	이충남	032-819-4461	인천 연수구 동춘1동 568
태원각	중국요리 전문	유종영	032-851-0083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 송도밀레니엄 808,809

Donation Interview

INU 네트워크를 감싸 안은 훈훈한 나눔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양운근 전자공학과 교수

우리 대학 전자공학과 양운근 교수가 한국안테나 주식 1,530주(평가금액 약 5천만 원 상당)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양 교수는 “국립대법인이 된 우리 대학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고학의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라며 또 환경 때문에 공부의 즐거움을 잊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지난 1988년 우리 대학에 부임해 25년간 후학 양성에 힘써 온 양 교수는 평소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한편 양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크스 후즈 후에 등재(2003년 개정판)되는 등 이동통신, 안테나, 부호이론, ITS 관련분야(과속단속장비, 지능형 도로망/차량에서의 통신방식 등)에서 연구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한국안테나, ㈜LG전자, ㈜JT 등의 회사에서 기술자문으로 활동하며 우리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산학협력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보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취업률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중국에는 우리 학생 및 동문들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Donation Interview

인천대 학생이라는 자부심으로 기부

장학금을 발전기금에 기탁한 이호곤 산업경영학과 3학년 학생

우리 대학 재학생이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두 차례에 걸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산업경영학과 3학년 이호곤 학생(08학번).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셨습니다. 또한 담당 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이어 올해도 성적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군. 더욱이 이 군의 이번 기부는 그간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모은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더해진 것이기에 맘과 정성까지 갖든 것이었기에 감동은 배가되었다. “올해 우리 대학이 국립대가 되어 재학생으로서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학이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 쑥스럽습니다.” 이 군의 이 같은 선행에 발전기금 관계자는 “최근 국립대로 전환한 우리 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해 발전기금 모금 방안에 관심을 두고 교직원 대상으로 모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이 군과 같은 재학생이 적극 참여해주시는 데 뜻깊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군은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더 학업에 열중할 것이며 소액기부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했다.



INU **LOVE** 발전기금 기부자 현황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국립인천대학교를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무통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RS 후원금 서비스 060-703-1212 한 통화당 3,000원

5천만 원 이상		
성명	관계	가부액
재단법인 미래국제재단	단체	200,000,000
농협은행(주) 인천시청지점	기업	100,000,000
양운근	교원	50,910,750

1천만 원 이상		
인천직업전문학교	기업	25,000,000
영림임업(주)	기업	20,000,000
김동한	동문	10,000,000
충동문화	동문	10,000,000

100만 원 이상		
농협은행인천대학교출장소	기업	5,000,000
선종삼	기타	3,560,000
변윤식	교원	2,500,000
이호곤	동문	2,000,000
김동근	동문	1,000,000
이한수	동문	1,000,000
(주)필름퍼플레인	기업	1,000,000
메이스엔터테인먼트	기업	1,000,000
삼우기공	기업	1,000,000
코코넛필름	기업	1,000,000
케이디미디어	단체	1,000,000
(주)밸류코리아	기업	1,000,000

100만 원 이하		
배양섭	교원	800,000
이찬식	교원	600,000
(주)시트론정보통신	기업	600,000
김종현	개인	500,000
김기웅	교원	500,000
김영관	교원	500,000
익명	교원	500,000
박인호	교원	500,000
손천택	교원	500,000
윤찬원	교원	500,000
이병수	교원	500,000
이상락	교원	500,000
이재석	교원	500,000
이종열	교원	500,000
김주영	동문	500,000

성명	관계	기부액
이승민	동문	500,000
김장성	동문	500,000
이균익	동문	500,000
이회만발전기금	동문	500,000
조중휘	교원	450,000
이재성	개인	400,000
이갑영	교원	400,000
함정호	교원	400,000
(주)아름관광여행사	기업	400,000
박창화	교원	320,000
조중휘	교원	300,000
김재영	교원	300,000
최근영	동문	300,000
국제교류원	단체	280,000
박종욱	교원	250,000
신원태	교원	250,000
우인성	교원	250,000
김평현	동문	250,000
문희중	동문	250,000
유정훈	동문	250,000
임주택	동문	250,000
김동호	직원	250,000
김승환	직원	250,000
한상혁	직원	250,000
김숙진	동문	200,000
윤용	동문	200,000
임만섭	동문	200,000
최두원	동문	200,000
김병호	동문	200,000
조길수	개인	150,000
김찬주	교원	150,000
김정곤	교원	150,000
박은경	교원	150,000
신호수	교원	150,000
우창기	교원	150,000
윤영돈	교원	150,000
장인우	교원	150,000

「人・材」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성명(상호명)		◎ 동문 · 재학생	학과(부) 입학년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학 부 모	학생성명	소속학과
E-mail		◎ 교 직 원	근무부서	직위
전 화		◎ 기 업 · 재 단	근무부서	직위
핸드폰		◎ 일반인	직 장 명	
주 소				
기부(약정)액	일금 원정 (₩)			

※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하고 세부사항을 적어주십시오.

[illegible]

위와 같이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인천대학교 총장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귀하

모/금/사/업

[모금캠페인 Contribution Campain]

- Vision 2020 인천대 사랑
- 장학금 되돌려주기
- 텐텐클럽(1010클럽)

[네이밍캠페인 Naming Campain]

- 건물명 짓기
- 강의실명 짓기
- 공원벤치 이름 넣기
- 의자이름 남기기

※ 각 모금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 (<http://funnd.incheon.ac.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칠하는 곳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11.1~2014.10.31
인천 우체국
승인 제40075호

받는 사람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12-1)

4 0 6 - 7 7 2

국립인천대학교를 후원해 주신
후원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명	관계	기부액
한상철	교원	150,000
김규만	동문	150,000
최호규	동문	150,000
김교홍	동문	150,000
성지희	직원	130,000
유혜경	교원	125,000
임순	교원	125,000
안춘순	교원	120,000
기종섭	동문	120,000
강경태	동문	120,000
윤덕영	동문	120,000
신동태	동문	120,000
고민정(조교)	교원	100,000
김영구	교원	100,000
김현진	교원	100,000
김인영	동문	100,000
최인한	동문	100,000
오기석	동문	100,000
오복자	동문	100,000
김태영(직원)	직원	100,000
손정숙	직원	100,000
최명중	직원	100,000
충남집	기업	100,000
김종호	직원	88,000
유현국	동문	80,000
이동엽	동문	80,000
이효정	동문	80,000
김보슬	개인	60,000
조한장	동문	60,000
정홍열	동문	60,000
박일충	개인	50,000
임경님	개인	50,000
강병민	동문	50,000
김지훈	동문	50,000
김치용	동문	50,000
배가람	동문	50,000
윤병선	동문	50,000

성명	관계	기부액
이두영	동문	50,000
이성호	동문	50,000
이종훈	동문	50,000
조철영	동문	50,000
한상길	동문	50,000
김재철	동문	50,000
박정희	동문	50,000
정대웅	동문	50,000
권기제	직원	50,000
김종인	직원	50,000
박정연	직원	50,000
서상범	직원	50,000
신천수	직원	50,000
이정희	직원	50,000
최준영	직원	50,000
한현미	개인	40,000
문종욱	동문	40,000
박도균	동문	40,000
신현호	동문	40,000
이상봉	동문	40,000
강현자	동문	40,000
김성은	동문	40,000
김은희	동문	40,000
성정옥	동문	40,000
유병순	동문	40,000
이병기	동문	40,000
김희강	동문	20,000
윤희량	동문	20,000
고민정	직원	20,000
곽용성	직원	20,000
양해숙	직원	20,000
주정현	직원	20,000
최주은	개인	10,000
김현진	동문	10,000
이효순	동문	10,000
최현아	동문	10,000
홍승주	동문	10,000